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부터 속회 후반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속장님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새로운 공과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큰 피해를 본 이탈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 40:21-26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오자영 집사

8월	1부 영접위원	안현숙 최미자		
	1부 헌금위원	진정숙		
	2부 영접위원	박홍재 최철수 김광일 백혜숙 김애순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이형숙		

오늘 식당 봉사 : 박미영 이은주 주은경 윤정화 박범희 조성일 박기영  
 다음 주 식당봉사 : 최현옥 김신실 안상숙 공재량 유은정 이순용 임주빈 이주경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61-65세)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떡 대 접 : 이봉옥 권사 (생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묘  
상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 후 제 15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6. 구세주를 아는 이들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새벽녘에 시원한 바람으로 여름내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납니다. 주님, 우리도 서로에게 새벽바람 같은 이가 되어 살게 해주시고 가을 같은 희망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전쟁을 연습하며 긴장과 갈등을 더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남과 북이 서로를 제거와 타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전쟁을 통해서만 그 누구도 평화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요15:14,15 ..... 인도자

♣ 교 독 문 ..... 28. 시편 63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한완식 장로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216. 성자의 귀한 몸 ..... 다 함께

♣ 성경봉독 ..... 막 1:16~20 ..... I. 인도자  
II. 하정석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나의 죄를 씻기는 ..... 찬양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 · 현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고인성	최소라	권미정	김기석	김희우	김애순	김주영	김준호	곽혜자	김지윤
정영우	김지호	전혜리	김진우	임미진	김철수	김유영	김현동	오유경	김희진
박홍재	박병구	박준희	이기분	박창운	허정윤	송인선	심상숙	오차영	이경남
이광섭	김수연	이국노	김민화	이근식	신영신	이봉은	이유선	이유진	이응석
이은경	이재삼	전정현	이준림	이치림	강상연	임고은	오재형	임승동	백혜숙
장의림	정현선	유병선	정현숙	조지연	최옥자	최재욱	이수정	최진성	최영은
하정석	이명희	한봉섭	한성건	정지혜	한인철	조윤숙	허성호	진은혜	

### 감사현금

김기석	김대규	김 린	김선희	김영호	김준호	김해선	김향자	김현숙	정학성
마준혁	박민선	박병구	김인순	박은애	박재영	이현정	백묘현	심해성	이경준
오진희	이수자	이순이	임창국	정현모	권정연	조현권	박아영	최미선	홍순복
무명14									

### 녹색꿈현금

김성순 김영희 김재흥 최희영 김정근 이미정 임선양 신현숙 정효진 무명4

### 생일감사현금

김대근 이시경

##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 교 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교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통속

서두르다를 서투르다로 잘못 읽었다 잘못 읽는 글자들이 점점 많아진다  
화두를 화투로, 가늌을 가름으로, 돌입을 몰입으로, 비박을 피박으로 잘못  
읽어도 문맥이 통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네 살배기 딸도 그랬다 번번이 두부와 부두의 사  
이에서, 시치미와 시금치 사이에서 망설이다 엄마 부두 부쳐준다면서  
왜 시금치를 떼는 거야 그래도 통했다

중심이 없는 나는 마흔이 넘어서도 좌회전과 우회전을, 가로와 세로를,  
중대와 횡대를, 콩쥐와 팥쥐를, 덩과 더머를, 델마와 루이스를 헛갈려  
한다 짝패들은 죄다 한통속이다

칠순을 넘기신 엄마는 디지털을 돼지털이라 하고 코스닥이 뭐예요?라  
고 묻는 광고에 사람들이 왜 웃는지 모르신다 웃는 육남매를 향해 그래  
봐야 니들이 이 통속에서 나왔다 어쩔래 하시며 늘어진 배를 두드리곤  
하신다

칠순에 돌아가셨던 외할머니는 이모를 엄니라 부르고 밥상을 물리자마  
자 밥을 안 준다고 서럽게 우셨다 한밤중에 밥을 매려 가지고 몸통에서  
나온 똥을 이 통 저 통에 숨기시곤 하셨다

오독이 문맥에 이르러 정독과 통한다 통독이리라

- 정끝별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나의 찬양은 내 주 예수 피밖에 없네  
 오직 나의 죄를 사해주시는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나의 죄 씻기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씻기고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니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 감사해

말씀	갈림길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2부찬양	다정하신 주님의 품에	2남선교회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 욕망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욱 크게 들으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다함께:	아멘. 자주 욕망에 이끌려 그릇된 길을 가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 물 문제의 해결책은?

유난히도 길고 더운 여름입니다. 오늘이 최고기온이다, 폭염이 절정이다, 다음 주면 무더위가 꺾인다는 말도 수차례 반복되기만 하고 몸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올해는 전기료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 보다 많았지만 그에 대한 걱정도 어느 때보다 큰 여름입니다. 에어컨 사용을 줄여보려고 찬물 샤워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문득 물을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물 소비량은 세계 5위로 유럽 선진국의 두 배가 넘으며 물 오염도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팔팔 나오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물 문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물의 과소비를 초래하고 물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3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수백 미터 지하에서 퍼 올린 물을 사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정화하는 비용보다 깨끗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비용이 더 싸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퍼 올려 써버린 지하수가 다시 채워지는 데에는 수백, 수천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비용이 덜 든다고 지하수를 마구 퍼 써버리는 것은 미래 자원을 당겨서 소모해 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더구나 댐 건설이나 갯벌 간척사업, 4대강 사업 등은 물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직선 물길을 내고 물을 가두어두기 위해 강이나 바다를 콘크리트로 메워 버리고 있는데, 댐이나 방조제에 갇혀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물은 결국 썩게 되고 자정능력을 상실

하고 말았습니다. 대규모 무분별한 토목사업을 벌이는 것도 지금 당장은 경제적 이득을 주는 듯 보이지만 물이 오염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물이 고유의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과정에서 모래톱이나 갯벌을 거치면서 스스로 정화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경제개발 우선 논리에 쫓겨 환경을 마구 파괴했으나 결국 자연을 살리는 것이 인류 생존을 가능케 함을 깨닫고 지금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환경을 복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물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물을 죽이는 행위는 당장 멈춰져야 하겠습니다.

식량 증산으로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의학의 발달로 질병에서 해방된다 하더라도 생명 유지의 필수요소인 물이 없다면 인류의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물 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물을 낭비하고 물 오염을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인류는 사용할 물이 없어 고통 속에 살아가거나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물 문제의 해결책은 물을 아껴 쓰고 물 오염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환경을 살리는 생활실천을 해나가고 있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쌀뜨물, 채소 데친 물로 설거지를 하고 화분에 물을 줄 때 사용하고 있으며, 양치질이나 비누질 할 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샤워는 짧게 하고 오염이 심하지 않은 물은 받아두었다가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손빨래를 하거나 비누와 같은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여 물 오염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 물의 고마움과 소중함은 다시 머릿속에서 흐지부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으로 느껴지고 난 후에 개선해 보려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대가도 크고 완전하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물도 공기도 모두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작은 실천으로 큰 재앙을 막는데 조금씩 보탬이 되는 생활에 대해 생각해봅시다.